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마태오 제9주일

미가 예언자

성 마르켈로스 주교순교자

(제8조 • 조과 부활 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8조 부활 찬양송 82

예언자 찬양송 84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85

사도경 : 1고린토 3,9~17 (봉독서195)

복음경 : 마태오 14,22~34 113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모님을 본받읍시다

테 오토코스께서 하늘나라로 떠나며 준비하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첫째, 성모님께서 올리브 산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테오토코스께서 마지막 날까지 선행을 베푸셨으니, 우리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선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 하느님의 왕좌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경고에 따라서, 하늘나라로의 부름에 언제나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마태오 24,44)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성모님 안식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시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를 그의 집에 모시라고 말씀하셨다.(요한 19,27) 사도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어머니 살로메하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살로메는 동정녀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다.

전승에 의하면, 성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삼일 전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녀의 임종이 다가왔음을 알려 주었다 한다. 성모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적으로는 아들이셨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에 기쁨이 넘쳤다. 성모님은 기쁨에 넘쳐 평소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시러 올라 가셨던 올리브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런 후 요한의 집에 돌아오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각지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들이 신비스런 안개 같은 것에 휩싸여 잠시 후면 세상을 뜨기 위해 누워있는 성모님의 침상 앞에 오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성모님이 잠에 들자 사도들은 시편과 찬송을 부르며 겿세마니 동산에 그녀를 장사지냈다. 그리고 삼 일이 지난 후 무덤에 가보니 그분의 육신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것을 본 사도들은 그분이, 우리가 성모 안식 찬양송에서 부르듯, '생명의 어머니시기에 생명으로 옮겨 가셨음'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런 기적은 그분이 하

느님을 잉태하여 낳고 길렀음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삶을 사셨기에 가능한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은총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루가 1,42~43)

이에 대해 동정녀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루가 1,48~49)

동정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써 전혀 의심치 않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의 믿음은 당신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였다. 아니 오히려 구원의 큰 뜻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는 기쁨으로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세상 모든 여인들 중에서도 하느님으로부터 주님을 낳을 수 있는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정교회 전통에서 ‘테오토코스’라고 불리는 그분께 오늘 우리는 존경과 찬미와 찬양을 드린다.

행복에 대하여

에기나의 성 벡타리오스(1846~1920)

자기 자신 바깥의 외국이나 여행, 부와 명예, 많은 재산과 쾌락, 그리고 결국은 씹쓸한 결말로 끝나고 말 헛된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그 얼마나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인가요? 자신의 바깥에서 행복이라는 탑을 건설하려는 것은 지진으로 계속 흔들리는 곳에 집을 지으려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은 곧 하느님이 계시는 옥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사이를 거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2고린토 6,16)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무엇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 가장 위대한 선(善), 곧 하느님 당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성 니콜라이 세르비아의 주교(1881~1956)

진리는 어떤 생각이나 말이 아니며, 사물들 사이의 관계도 아니고 법칙도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적인 한 분이십니다. 진리는 한 존재이며, 이 존재는 모든 존재를 뛰어넘고 모든 것에게 생명을 줍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사랑을 위해, 진리를 구한다면, 진리는 당신이 불에 타버리지 않고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자기 얼굴의 빛을 당신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8월 15일 축일을 맞이하는 전주 성모 안식 성당의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님과 모든 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시고, 영적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8월 15일(월) 오전 9시
성모 안식 축일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광복절 영광식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표지 사진 설명



벧파게

벧파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행렬이 시작되었던 마을이며, 올리브 산에서 베다니아 방향으로 10여분 정도 걸으면 닿을 수 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마태오 21,1~11; 마르코 11,1~11; 루가 19,28~38; 요한 12,12~19)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며 말 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 보아라. 거기 들어 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마르코 11,2)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때 발을 디뎠다고 전해지는 바위가 보존되어 있다. 사진은 올리브 산에서 바라본 벧파게의 근래 전경이다. 멀리 베다니아가 보인다.

소식

■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지난 8월 6일(토), 수도원에서 축일 성찬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날 축일을 맞은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추도식이 고인의 묘소에서 있었습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이 안식하신 후 처음 맞은 축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을 비롯한 여러 신부님과 신자들에게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 안토니 수도신부 출국

울산 성당의 사목을 도왔던 미국 성 안토니 수도원의 안토니 수도신부가 지난 8일(월) 출국하였습니다. 그간의 도움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인의 가르침

당신은 무엇을 호흡하고 삽니까?

(러시아 크론스탄디의 성 요한)

육신과 동식물에게 공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천사들에게는 성령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영혼은 성령으로 숨 쉬고 있음을 알라. 이 호흡이 멈추면 죽고 만다.

그러니 성령이 생명의 은인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라.

그러니 마귀가 뿜는 악취와 죄악 그리고 특히 불신과 미움을 멀리하라.

그러니 숨을 들이쉬며, "내 영혼아"하고 다시 호흡하며, "성령이시여" 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